

“하나 된 무주 만들터”



황정수 군수, 민선6기 2주년 기자간담회서

계사는 무주도,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도 농·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문화와 예술, 체험과 관광, 산림 자원 등을 연계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6차 산업을 정착시킬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를 위해 "주말난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6개 읍면의 마을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 리더를 키우는 일과 효율적으로 농지를 활용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 등에 더욱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도약을 위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완벽 한 준비를 위해, 그리고 태권도원 진 입도로 확장을 상징지구의 조성, 국기원 등 태권도계 심장 기관들의 무주 이전, 그리고 민자 유치 등 태권도원 성지화를 위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65%의 진척률을 보

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공약추진에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시간 마음을 다하면 통한다는 확신, 노력하면 안 될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만큼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군에 따르면 36개 공약사업 중 흡수 육성 특화사업과 인재육성 지원사업, 중·고등학생 야간안전거기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사업 등 20건이 이행돼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덕유산탐방배치센터 조성사업 등 16건은 정상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이다.

황 군수는 "2년을 지난 또 다른 2년을 시작하는 지금 '같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소통의 리더가 되겠다는 제 의지가 있고 열정을 다해 땀 각오가 돼 있는 6백여 공직자들이 함께 2만 5천여 군민들의 마음을 모아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 민 실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가야문화 세계유산 등재 위해 국회 방문

당위성 설명 협력 요청

장수군(군수 최홍득)은 장수군에 자리하고 있는 가야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최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김윤섭 부군수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업 (정읍고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용진 (서울 강북을, 장계출신), 안호영(원주진안무주정수)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 장수가야문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력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유성업 국회의원은 지역에 가야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관심을 통해 세계유산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대신해 자리한 이승천 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의장의 고향인 장수에서 소중한 가야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표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있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윤섭 부군수와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이 주최하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간담회 및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만영(경북 고령 성주철곡),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추경호(대구 달성),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과 광양고령군수, 김향근 성주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이조승 남원부시장 등과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 대통합과 문화융성을 달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5도·5군 4H회원들 무주서 만났다 태권도원에서 화합행사 가져

제26회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가 지난달 30일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4H연합회(회장 이상훈)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5도 5군 4H회원들이 지역을 넘어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며 농업·농촌 발전의 주역이 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남 거창과 경북 고령,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4H회원 3백 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무주군 4H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을 달리는 회원들이 만나 소통하는 이 시간이 4H는 물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지, 덕, 노, 체 네이클로버의 희망을 심고 기구어온 4H 정신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체육행사에도 함께 했으며 태권도원 전망대와 박물관을 관람하며 전 세계 200개국 8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원의 위용을 만끽했다.

한편, 황정수 군수는 "명석한 머리, 충성스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 한 몸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지키

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4-H라는데 존경을 표한다"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의지를 북돋우고 농업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도 되기를, 오늘을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가 지역과 국가발전이 이바지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 미국 등 작가 23명 참가 3일까지 삼례에서

한국 전통 고유의 막사발 장작가마를 시연하는 완주 세계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 2016이 오는 3일까지 완주군 삼례읍 세계막사발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계막사발 심포지엄은 독일, 미국, 중국, 터키,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작가 23명이 참여해 한국 전통 고유의 막사발 장작가마를 보고, 체험하는 자리이다.

특히 23명의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도예조형물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도예양식을 살펴보고,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소박한 우리 생활 도예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일 열리는 기념식에는 풍물패 사물놀이 등 식전공연을 비롯해 가마 불붙이기, 가마고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완주군 세계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은 워크숍 및 토론회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예 체험, 풍납마켓, 이야기가 있는 벽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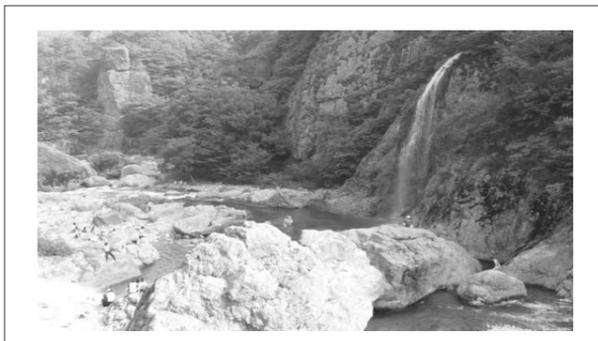
행사참여 문의사항은 세계막사발미술관(290-216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월례조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3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6기 2주년 기념 7월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이날 이항호 군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2년 연속 수상, 도시가스 공급 현실화,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농산물 판로확대로 농업소득 향상, 홍삼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등 2년 동안의 성과를 언급하며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협정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을 펼쳐 줄 것과 똑똑한 공무원 보다는 지혜로운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진안군 주천면에 위치한 운일암반일암이 지난달 27일 개장해 오는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을 피서 진안 운일암반일암에서

8월 15일까지 운영

바위와 바위 사이를 휘감고 도는 맑은 물과 크고 작은 폭포가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운일암반일암이 지난달 27일 개장해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진안군 주천면에 위치한 운일암반일암은 1990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 계획적인 투자로 계곡 산책로 ▲무지개다리, ▲아영장 등 각종 편익시설이 마련돼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곳이다.

금강의 발원지이기도 한 운일암반일암은 금강정맥의 지붕으로 불리는 운장산(해발 1,126m)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해발 840m의 명덕봉과 명도봉 사이 약 5km에 이르는 협곡에는 용소, 폭

두리, 대불바위 등이 웅장함을 더해준다. 또한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더덕 등 농산품과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한 송어회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군은 을 여름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119구조대, 주천면 등 합동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했으며, 각종 편의시설 점검과 정비 작업을 하는 등 운일암반일암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질서 확립, 친절한 서비스, 환경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름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시원한 운일암반일암에서 을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원 COOL SUMMER 이벤트’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태권도원(이사장 김성태)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태권도원 COOL SUMMER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원의 캐릭터 이름으로 구성된 3개 마당 중 물놀이 이벤트 장소인 '태극마당은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함께 을 여름 뜨거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과 온가족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물속에서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아쿠아 수련 프로그램, 물총놀이 등을 준비했다.

체험이벤트 마당인 '진진마당'에서는 태권도원의 캐릭터 타투·풍선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및 전통의상, 태권도복 체험과 호신용품 체험 등을 마련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

마지막 마당인 '백운도사마당'은 태권도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정통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주말기간(7월 23일 ~ 8월 23일)에만 진행되는 특별공연(마사지 퍼포먼스)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



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회 관련 정보와 다양한 체험거리(격파 체험, 에어바운스, 쿼츠 마당 등)와 경품을 준비했다.

한편, 태권도원과 무주군 관광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주 웰빙지투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무주관광협의회 홈페이지(www.muju-tour.co.kr)를 통해 알 수 있다.

태권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062-320-0114) 또는 홈페이지(www.tkdwon.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진장소방서(소방장 이상원)의 협조로 물놀이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구조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요원과 민간예찰단원의 호응이 컸다.

또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원들은 관내 물놀이 주요지역의 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으로 물놀이 사고예방에 참여 예찰활동의 폭을 넓혔다.

군은 관내 주요 26개소의 물놀이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설치하

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7개소에는 1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민간예찰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역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참여를 통해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물놀이 안전관리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요원과 민간예찰단 등 민관협력으로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

완주군 복지허브화 사업

삼례·봉동읍까지 추가

완주군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지역을 '삼례읍, 봉동읍'까지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이서면에서 이어, 6월 30일자 인사에 따라 삼례읍, 봉동읍이 추가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기존 읍면동능중 복지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민간조직 활성화등을 통해 저소득층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4개 읍면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전 읍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읍 디지털게시판 통합 운영

장수군 장수읍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장수읍은 주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민원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홍보게시물을 디지털게시판으로 통합 운영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장수읍 민원실에 설치된 디지털게시판은 장수군정 주요소식을 비롯해 문화관광, 각종 생활정보 등 일상에서 유익한 내용이 게시된다.

특히 종전 납작했던 각종 게시물을 디지털게시판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이 기대된다.

박인호 장수읍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이항기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진안군의회 이항기 의장은 지난달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천만호)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수행으로 성숙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항기 의장은 3선 기초의원으로서 제7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군민과의 소통을 제목표로 두고 활동하며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다.

이항기 의장은 "이 상의 주인공은 매번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주신 진안군민 여러분"이라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상인만큼 보다 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산서 주민자치위 영대산 등반

장수군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규생)는 지난달 30일 영대산 등반행사를 갖고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산서면 주민자치위원 10여명은 지역 명산인 영대산을 등반하며 영대산 탐방로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과 영대산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등 영대산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김규생 자치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영대산 탐방로 개발사업 등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 진행되기를 바라며 우리지역 명산인 영대산의 자연을 훌륭하게 가꾸고 정비하는데 우리 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